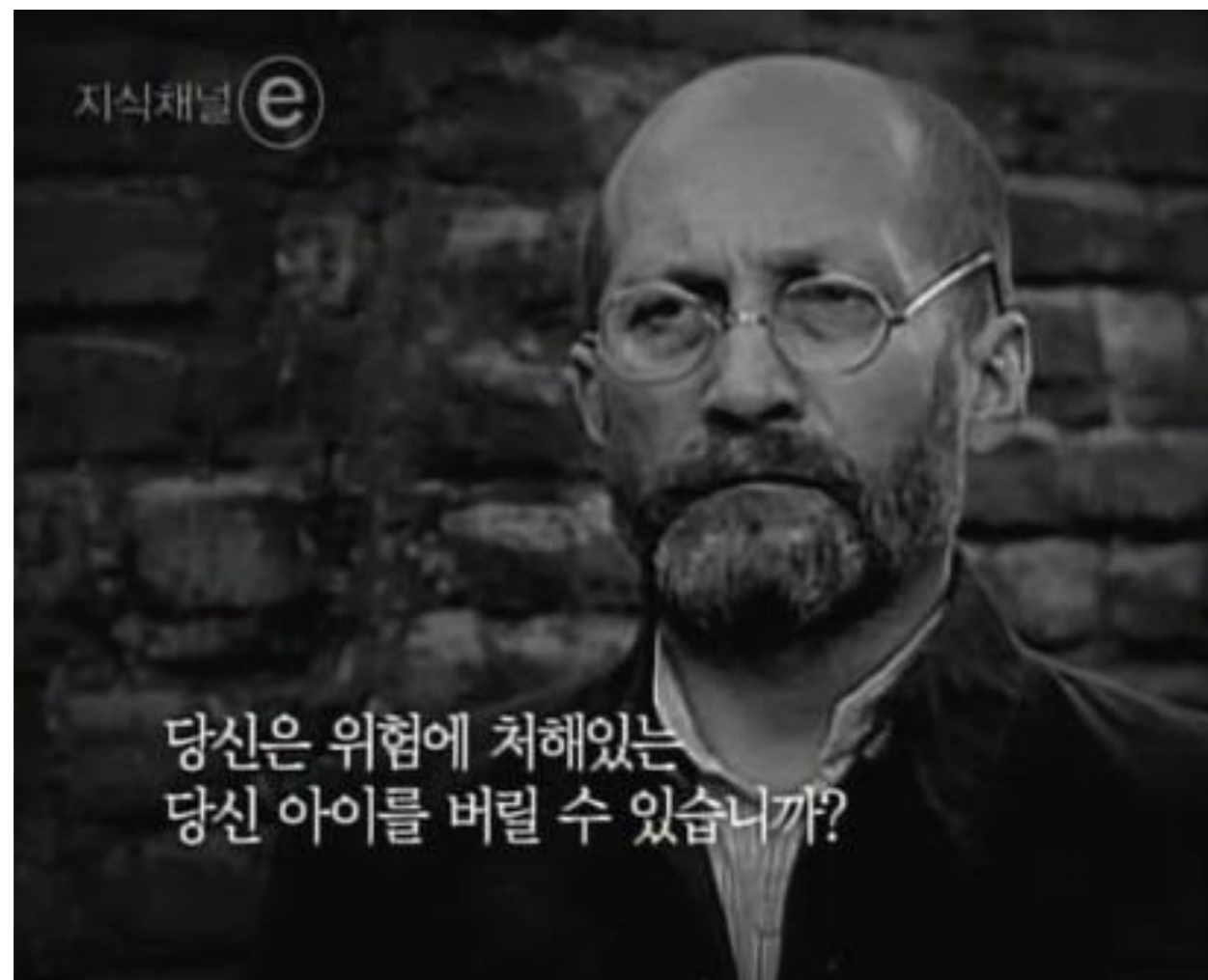


치유적 학교의 역사

- 마리아 몬테소리의 몬테소리 학교
- 슈타이너와 발도르프 학교, '교육은 치료다'
- AS 닐과 빌헬름 라이히, 호머레인과 서머힐
- 오비드 데크콜리와 데크롤리학교, 신경발달
- 야누쉬 코르차크와 고아원 학교



치유적 학교의 역사 2

- 아들러와 그 제자들, 루돌프 드라이커스, 제인 넬슨
- 학급긍정훈육, 협동훈육 등



- 윌리엄 글라셔와 선택이론, 좋은 학교
벤츄라 학교



치유교실(학교)의 기본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형식을 만들고 학생은 내용을 채운다 -- 프레네 학교 이야기 중에서

교실 (학교)의 기본

-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 치유적 (대안적) 교실, 학교에서는 특히 무엇이 중요할까?
()

교실 (학교)의 기본

- 우리는 왜 치유적 (대안적) 교실, 학교를 하려고 할까?
- 우리의 대상인 학생들의 특징을 다섯 가지 미만으로 특징을 짓는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학교의 가치 요소는 무엇인가?



치유학교의 터가 되는 기본

- 왜 하려하는가?
- 누가 오는가?
-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 무엇을 하려 하는가? / 어떻게 다르게 해야하는가?
-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그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누가 오는가?

-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치유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지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정하는가?
- 의뢰, 연락, 만남, 면접,.... 그리고 최종 결정
- 그 후 어떻게 시작,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교사단, 교사회
- 교사 치유없이 학생치유없다!

학교 기후

-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혹은 School Climate는 설립 목적과 이에 따라 모인 교사들, 상담사 등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로 만들어진다
-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혹은 School Climate는 모인 아이들의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다
- 이 기후가 치유적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하다
- 그 학교에 가서 공기를 맡아보면 이미 안다. 그 학교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

치유학교라는 건축물 세우기

(구성요소/ 운영원리/

문화만들기/규칙세우기)

치유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조직, 학사, 교육과정)

치유학교 뼈대 세우기 기본 질문

터를 잡은 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실(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 등교,
- 아침을 여는 모임,
- 시간표 : 수업, 활동, 상담, 견학
- 점심
- 교재, 교구
- 평가,
- 오늘을 끝내는 모임,
- 방과 후 생활.
- 학부모회
- 교사 회의
- 학생회

이런 것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의 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원리는 무엇인가?

치유교실(학교)를 치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바꾸어야 할 것들

- 등교는 어떻게?
- 아침 모임은 어떻게?
- 아이들과의 회의는 어떻게?
- 수업, 활동, 상담은 어떻게?
- 학부모와의 연락은 어떻게? 학부모회의는 어떻게?
- 교사회의는 어떻게?
- 방과후 일어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에서 치유의 영향과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학교의 많은 구성 요소들이 치유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섬머힐은 왜 수요일 회의를 공개하는가?

- 그렇지만 가장 먼저 세워할 것은?

- 규칙세우기 (= 문화만들기의 기본)
-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기
- 이것이 가장 중요함
- 이것을 함께 정하기
- 이것이 학교문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하기

규칙세우기는 어떤 활동일까?

- 학급 규칙 세우기 (학교 규칙 세우기)
- 나의 학급 규칙으로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 학생들은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그 규칙을 정할 것인가?
-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참여, 소통, 주체, 권한, 의사결정, 책임, 소속감, 의무, 교사의 입장, 아이들의 입장 등등
- 아이들이 만든 규칙이 아이들을 치유한다!

권한 리스트 목록

선생님 권한 리스트

아이들 권한 리스트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아동관, 학생관이
결국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보통 학생이 시작한 문제를

교사들끼리 싸우다가 치유교실 (학교)가 망한다

교사회의를 통해 교사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생명연장 길이다

치유적 학교의 조직

- 학교의 조직
- 아이들은 학교 조직의 위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파악한다
- 여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곳인가?

- 조직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누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는가?
- 누가 감독자인가?
- 많은 치유적인 전통적 대안학교는 총회에 이 권한을 두었다. 그리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두었다.
- 이 총회가 최고 권한이 있는 경우의 장점은? 단점은?
- 교사회의 권한, 교장의 권한, 상급 기관의 권한은 어떻게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가?

치유적 학교의 교육과정

- 치유적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과목
- 시간 수
- 누가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이수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가?
- 교육과정은 어떻게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과정 어떻게 짤 것인가?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정하도록 할 것인가?
-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 수업, 활동, 상담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기별, 쿼터별, 월별.....
- 연령대별, 수준별.....
- 1대1, 그룹별, 전체대상...
- 치료라는 말은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교실 혹은 학교에서
- 치유적인 것은 상담만인가? 수업과 활동이 주는 치유적 효과는 없는가?

치유학교의 내부 세우기 -

수업, 관계, 활동

치유적 활동을 배치하기

(수업, 상담, 활동, 캠프, 발표회)

치유학교의 내용

무엇으로 아이들은 치유의 시간과 만나게 되는가?

특별히 치유적인 수업이 있는가?

- 아이들에 따라 다 다르다
-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 있는가?
 - 정하기 나름
- 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가?
 - 워낙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하는 수업과 활동 등은 무엇일까?
 - 단지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 흥미 (동기) 유발,
 - 과정 참여,
 - 관계배움,
 - 성장, 성취
 - 결과물이 제공되어 이전과는 다른 배움 경험(체험)이 있어야 한다

원칙 – 3c (capability, connecteness, contribution)

1. 이론 보다는 실기 – 체험
2. 몰입하기 좋은 활동들
3.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
4. 기술의 성취가 단계별로 시작화할 수 있는 활동들
5.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하면 더 멋진 활동들
6. 적합한 활동의 제공 : 두 개의 시간표 혹은 휴식
7. 너무 많은 시간보다 확실히 배우는 수업이 더 중요
8. 많은 경우, 아이들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 치유교실 (학교)는 교실, 학교 이므로 기본은 수업으로 표현된다
- 상담을 수업으로, 수업을 상담으로
- 아이들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다
- 휴식도 격식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 치유는 또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 일취월장을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안목
- 좋은 교사는 좋은 배움을 안내한다

교육과정을 시간표에 반영하고 적용하기

무엇이 치유적인가?

- 주 몇 회를 나오게 할 것인가?
- 일 몇 회의 수업을 할 것인가?
-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몇 시에는 모두 아이들을 돌려보낼 것인가?
- 부가적인 상담은 할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각, 조퇴, 수업불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온갖 예외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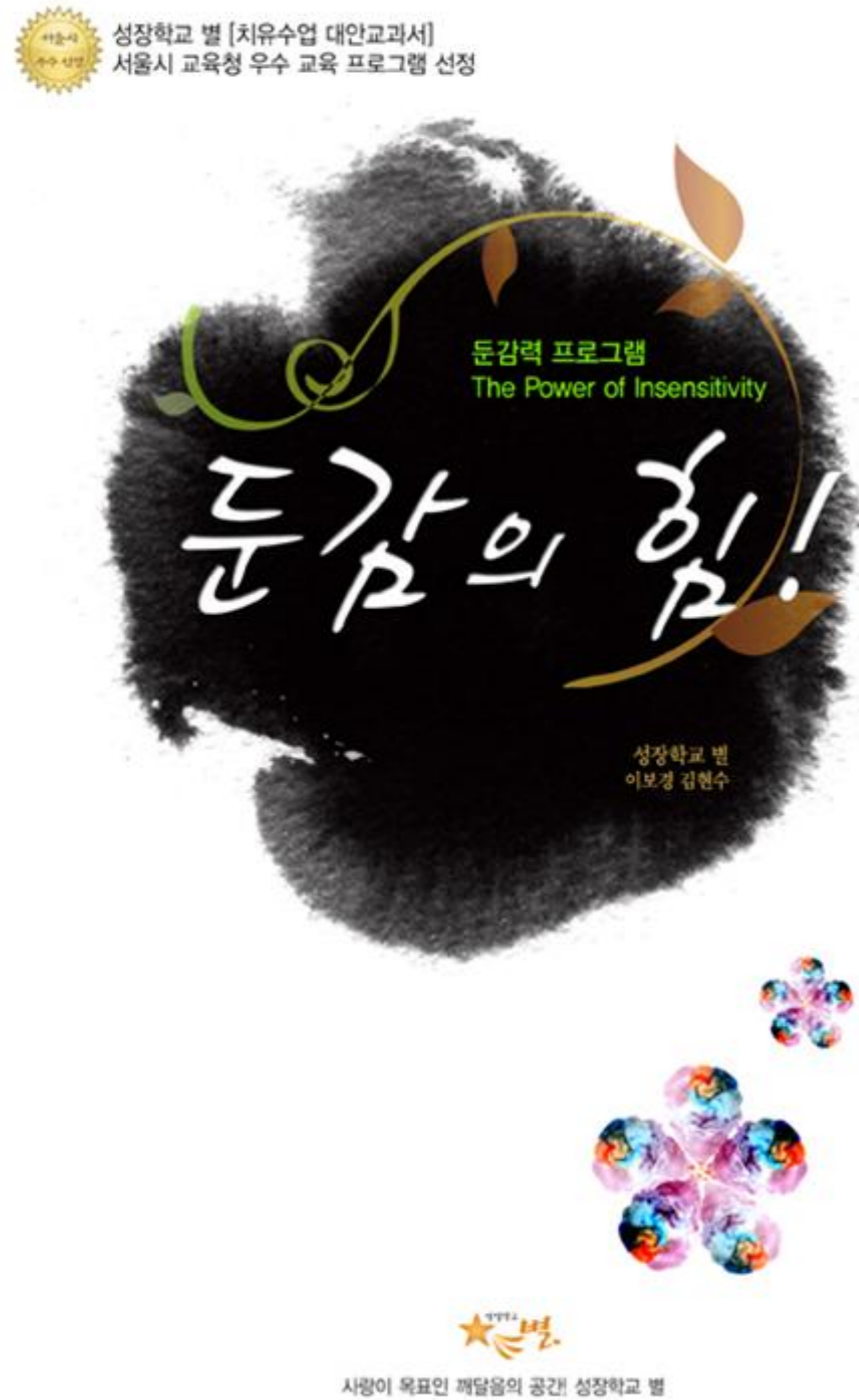
시간표 관람 교육과정 설계

2010년 2학기 시간표(확정)

	월	화	수	목	금		
여는 모임							
1교시 (10:30-11:20)	프레네 수업1	1. 반편견	1. 감정사용하기	1. 미술치유1	1. 성교육1 (정래T)		
		2. 포토샵(김선희, 송실)	2. 한지공예(김도연, 서울)	2. 미술치유2	2. 성교육2 (경은T)		
		3. 중등 사회(손동영)	3. 세상을 보는 네모난 눈	3. 개별미술(김용량)	3. 소녀를 말하다(여학생회)		
		4. 중등 과학(유주리)	4. 스타샵	4. 태권도(김창희)	4. 중국어회화(원어민) (박민지, 서울)		
		5. 성장소설(조향순)	5. 신문사	5. 목공(이유승, 건국)	5. 피아노 (주효선T) 6. 대화법 (김령희)		
2교시 (11:30-12:20)	1. 근현대사(오계식, 서울) 2. 중등수학(이주영, 송실) 3. 합창 4. 급수 한자 5. 기초 일본어(김여진)	부서회의	1. 원예치유 2. 종이접기(김현경, 송실) 3. 세상을 보는 네모난 눈+ 4. 스타샵+ 5. 신문사+	1. 미술치유1+ 2. 미술치유2+ 3. 미술사(김현승, 서울) 4. 한국사(이유명, 서울) 5. 목공+	1. 경제(전원우) 2. 오카리나(유세별, 서울) 3. 중국어회화(원어민) 4. 중국어(안보라, 서울여) 5. 탁구(조윤오, 송실)		
3교시 (13:30-14:20)	1. 둔감력 2. 연극 3. 갈등해결 4. NIE(신문활용수업) 5. 국어문법		1. 축구 (이승진, 송실) 2. 치유산행 (서지민, 서울) 3. 치유요가 (박미정, 송실) 4. 별별체육 (김여진) 5. 자전거탄별	1. 필수영어1(김여진, 송실) 2. 필수영어2(도예린, 송실) 3. 필수영어3(황준호, 송실) 4. 필수영어4(김준환, 송실) 5. 필수영어5(강승아, 서울)	1. 필수수학1(황재아, 송실) 2. 필수수학2(박서영, 송실) 3. 필수수학3(심재원, 서울) 4. 필수수학4(박장호, 건국) 5. 필수수학5(정민우, 건국) 6. 개별수학 (김상아, 송실)	1. 밴드부 (강인정) 2. 노손도손 (항상영, 송실) 3. 요리(노현기, 송실) 4. 순간의미학(김철호, 건국) 5. 풍물(우별림, 풍물)	
4교시 (14:30-15:20)	1. 낙관주의 2. 연극+ 3. 사회문화(박정한, 서울) 4. 힙합 (김여진) 5. 볼링(신현권, 서울)		1. 축구+ 2. 치유산행+_ 3. 요가+ 4. 별별체육 5. 자전거탄별	프레네 수업2	전체회의	1. 밴드부+(이보경) 2. 노손도손+(김령희) 3. 요리(이정래) 4. 순간의 미학(정수미) 5. 풍물(박경은)	
5교시 (15:30-16:20)	1. 고등 영어(김나영, 서울) 2. 기초수학(장선옥, 서울여) 3. 기타 & 보컬 동아리 (안수연, 김나영, 서울여)		1. 임원회의 2. 멘토(송유진, 서울) 3. 인형만들기(김민주, 서울) 4. 고등 수학(고민정, 서울) 5. 고등 국어(배다혜, 서울)			1. 중등 영어(범미소, 송실) 2. 기초일본어(김지민, 송실) 3. 중등 수학(한동우, 송실) 4. 고등 과학(손용식, 송실)	1. 중등 과학(유근우, 서울) 2. 중등 수학(윤현, 송실) 3. 독서토론(고단비, 송실) 4. 드럼기초(박세종, 송실) 5. 소품만들기(권경아)
6교시 (16:30-)						1. 중급일본어(조민경, 송실)	

1	대표교사 및 전체 특강	협동조합	일본어회화 국어 영어회화 1	음악협동조합 (외부) IT협동조합 (외부) 농업협동조합 (옥상)	프레네 자유글쓰기 주간평가 & 반회의
2	프레네 자유글쓰기 & 주간계획 & 반회의	협동조합	한국사1 헌법 청소년 인권수업 (이정훈 변호사) 비폭력대화	미술협동조합 (실내/외부) 음악협동조합 (외부) IT협동조합 (외부) 농업협동조합 (옥상)	부서별 회의/ 학생회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필수)
3	풍물 놀이 자기표현토론 (박성현) 창작하는 몸짓 (박재성) 글쓰기협동조합 (김찬빈)	전체회의	(외부수업) 한강자전거 클라이밍 저글링 (학교) (한강고수부지)	재즈리듬 갈등해결 분노조절 국어 영어회화 2	구기종목 (축구)(농구)중 한팀 선택 난타 지역사회조사 (사회) 진로프로젝트 (졸업반)
4	(외부수업) 다트 (6층) 요가 (외부) 당구 (외부) 탁구 (외부)	수학 과학	자전거 클라이밍 저글링 외발자전거 오채 예고시	둔감력 반편견 경제생활 한국사2 (영화로 보는 한국	

성장학교 별 - 사회정서학습 대표교과



- 둔감력 수업
- 분노조절 수업
- 반편견 수업
- 치유산행 수업

성장학교 별 사회정서학습 대표교과

삼성꿈장학재단
교육복지지원사업
"나와 함께하는 4 me!"

- 갈등해결 수업
- 낙관주의 수업
- 감정사용 수업
- 지피지기 수업
- 정중거절 수업

정중 거절

-자기주도적 의사소통 거절수업-

캠프, 발표회는 정말 치유적인가?

- 소속감, 유대감, 자존감, 자부심 형성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발표회
- 발표회가 공개적인 치유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캠프는 학생들 사이도 그렇지만 교사를 발견하는 배움의 자리인 경우가 많았다
- 캠프, 발표회의 추억으로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기억한다
- 캠프, 발표회는 학교의 전통을 쌓아가는 핵심문화이기도 하다

꼭 해야하는 수업, 활동, 상담

꼭 해야하는 수업, 그리고 이유는?

하면 좋은 다음 학기, 시도해볼 생각인
수업

별학교가 발견했던 수업들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접근

(트라우마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학교)

치유교실의 방향

부모상처, 또래상처, 공부상처, 학교상처
가벼운 어려움부터 심한 어려움까지

Key Word

- 아동기 부정경험 연구(ACE)와 그의 활용, 의미, 지속성
- 트라우마는 가장 흔한 아동-청소년기 문제이다
- Trauma sensitive lens (view) 그래서 트라우마에 민감한 관점이 필요하다
- 트라우마에 관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1. 트라우마를 감지하는 교사되기 (트라우마 감지자)
 2. 안전한 공간 만들기 (공간 창조자)
 3. 안전한 느낌 만들기 (안정 안내자)
 4. 긍정적 행동 제안하기 (긍정행동 제안자)
 5. 몰입적 활동 진행하기 (몰입활동 진행자)
- 트라우마를 안정시키는 일곱 가지 기본 기술
 - 1) 흥분 가라앉히기 2) 마음챙김 3) 관계의 활용 4) 공동의 리듬만들기
 - 5) 마사지 6) 대응행동 가르치기 7) 고백적 글쓰기

Trauma Sensitive School

교사의 또다른 역할 : 안정을 찾게 해주는 기술이 있는 사람
트라우마 기억의 재현을 잠재우는 기술이 있는 사람
다시 관계를 주변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 치유교실의 핵심 이슈는 경계선 장애든, 조현병이든, 혹은 특별한 진단이 애매하든 다양한 상처, 트라우마로부터 온다
-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바로 이 트라우마 받은 아이들과의 상담이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준비

- 아침을 여는 모임
- 상태를 안정시키는 호흡체조와 마음챙김
-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비
- 안정된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 학습법
- 흥분한 상황에서 덜 창피하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 예방적 대처요령
- 헤어지는 모임
- 학급 이외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 치료적 수업 (Socio-Emotional Learning) : 감각훈련, 분노조절, 의사소통, 낙관주의, 심리안정, 마음챙김, 명상, 예술수업 등등
- 긍정훈육법 (Positive Behavioral Approach)
- 개별적 정기적 면담
- 만성적 독성 스트레스에서 지속적 긍정격려체계로의 전환
- 교정적 애착을 위한 관계 시스템 만들기

School Climate

-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분위기 vs 트라우마를 care하는 분위기
- 레빈의 실험 :
- 권위적인 집단에서의 아이들 분위기와 민주적인 집단에서의 아이들 분위기
- 공포가 만드는 긴장과 갈등, 경직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경험이 된다. 표정도 없고 권위자가 없을 때는 새로운 폭력체계가 작동한다
- 학급의 분위기를 어떻게 돌봄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가?
- 돌봄의 분위기가 아닌 것을 제거하기 - 교사집단의 민감성
- 격려와 응원체계가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 학교인가?

그렇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 어떤 단계별 시도를 하는가? 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 아이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 한 아이를 내보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는가가 있어야 한다
- 시작도 다르게 했듯이 끝도 다르게 해야 도움을 주었던 곳으로 기억된다
-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을 단호히 내보내야할 때는 책임있는 사람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나가야할 것 같은가?

교사의 Self-care, Group-care

- 교사가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받는다
- 매일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루어주고 아이들의 부정적 행동을 받아주어야 한다
- Compassion Fatigue, Secondary Trauma, Attrition, Burnout
- 아이의 트라우마를 다루어주려면, 교사 자신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야 한다
- Cultivating Awareness and Resilience Education in Teachers (CARE)
- 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 (SMART)
- 내용 : mindfulness, self-awareness, self-compassion, self-regulation

빈대도 오장육부가 있다
- 구전 속담 중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 베델 공동체, 브라브라에서
 - 체스터튼

관계 속 학교를 위한 성장학교 별의 과거 노력들



학교는 사유하는 공동체다 학교는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민주적 과정이다

-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다
- 학교는 생각을 하는 것을 돕고 훈련하는 곳이다.
- 학교에서는 민주적인 것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민주적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 라고 묻는다
- 학교에서는 무엇이 옳거나, 어떻게 하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투표는 자치의 최악의 결정이다.
-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로 인해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묻는다
-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투표를 사용한다. 순서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만 드물게 사용한다.
- 절차나 수단을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늘의 삶이 교육과정이다

-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할까?를 지금 모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시작한다
-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되지 않듯이, 정해진 교육과정은 없다
- 발달단계를 포함한 여러 체계적 이론들을 존중하지만 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실은 풍부하다
- 필요하면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각 자가 알아서 한다
-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자신이 주체임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없다



성장학교 별에서의 모방과 실험

- 학교세우기 프로젝트 주간 : 매학기 실시
- 무학년제
- 교육과정 구성 3주체 참여 : 1/3의 법칙
- 회의중심 체제
- 플래너 : 자기 학습 및 활동 계획제
- 교사 소개 및 활동소개, 담임 공약제
- 학생회 - 부모 - 교사 : 6인용 식탁
- 갈등해결부
- 객관식 평가와 시험제도 운영하지 않음 : 성장일지와 자기성장보고회, 발표회

제도적 학교, 자주경영과 학급자치회의

1. 제도적 교육의 시작과 끝은 회의이다.
2. 제도적 교육은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회의는 필수적이다.
3. 회의 : 어떻게 같이 지낼 것인지,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인 생활과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러므로 프레네 교사들과 제도적 교육학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4. 소통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지? 라는 근원적 사유를 하게 한다.

* 소통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bout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소통은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참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관심이 누구나 있어야 한다.

관심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을 나눌 수 있으면서, 가장 참여적이면서, 가장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누구와 ? --> 우리 학급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5. 학급은 개인생활과 집단생활의 혼합체이다. 이 공동생활에서 소통과 참여, 관심은 어떻게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함께란 의심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전제이다. 아무리 학교에 와서 개인적으로 지내려하더라도 적어도 교사와는 함께 해야한다.

6. 함께 지내는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 학칙에 따른다. 학칙이 무언데?
- 교칙에 따른다. 교칙이 무언데?
- 선생님이 정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부터 정하는가?

7. 자유와 책임, 자발성 등의 주제는 추상적인 사유의 주제가 아니라 아주 기초부터 제기되는 생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8. 교사가 해야할 일 -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그리고 함께 참여하기

- 교사가 있을 때는 교사 1인에게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
- 교사가 없고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무엇에 맞추어 생활할 것인가?



9.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기 = 민주주의를 함께 배우기

10. 함께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함께 결정하기

1) 말하기

2) 듣기

3) 결정하기

4) 결정한 것을 지키기

5) 결정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아이들이 안 지켰을 때

- 선생님이 안 지켰을 때

11. 의사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한다.

- 자유표현

- 자유글쓰기

- 왜? : 교실에서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장치란 무엇인가?

선생님?



12.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 계속 들을 것인가?
- 언제 중단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중단을 제안할 수 있나?

13. 의사결정하기

- 다수결로?
- 합의로?
- 각 자의 길로?
- 아니면 또 다른 결정방식은?

14. 결정한 것을 지키려면

- 어디까지가 자유인가?
- 어디부터가 지키지 않은 것인가?
- 지키는 것을 격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5. 결정한 것을 안 지켰을 때

-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 책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 누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
- 만일 벌을 쓴다면 어떤 벌을 쓸 것인가?
- 벌만 서고나면 끝인가?
- 사과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
- 우리는 선생님에게 혼나야하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혼나야 하나?



16. 우리는 생활하는 법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17. 자주경영학교 : 이런 기초를 학교운영으로 확대한 것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
18. 기본팀별 자치회의
함께 사는 법을 점검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하는 회의
-이 회의가 없으면 우리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수업은 듣지 않아도 회의는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졸업생 조사 (10주년)

1. 학교의 시스템, 체계가 치유적이었다. 의견을 낼 창구와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 좋았다
2. 자유가 즐거웠다. 해방된 기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좋았다
3.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배우고 싶지 않은 과목까지 배워야 하지 않아서 좋았다
4. 선생님과의 상담이 좋았다. 선생님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려고 했다
5.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자주적 학교로 가는 길

다섯 개의 깃발
자유, 민주, 협력, 참여, 기여



상처 투성이의 학교 조직

- 온갖 요구, 간섭, 조치, 침탈 등으로 학교는 상처투성이이다
- 교사와 학생, 그리고 참여적 학부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본 적이 없다
- 특히 국가나 사회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학교란 조직은 그래서 언제나 침탈받는 조직이다
- 표준, 국정화, 모델, 시범의 난무....
- 교사도 대행자, 대리자가 되도록 조직되기때문에 아이들과 관계 맺을 수 없다
- 교사, 아이들 모두 파행적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관계에 놓여져 상처만 주고 받는다
- 아무도 주체가 되지 못하는 교실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난타전만 계속 되면서 소진되고 있다



자유가 치유이다

- 자유가 치료다 ! : Franco Basaglia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탈원화 운동의 지주
- 그가 발견한 자유가 치료인 과정 :
- 통제에 기반한 기관 Total Asylums, 일종의 수용소와 유사해진다 (Irving Goffman)
- 학교의 기능에 관한 역사적 이해 : 국정교과서와 같은 시도 (전체주의적 도구)
- 자기 결정권이 없는 주체들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Erich Fromm)
- 자주적 학교로 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온갖 규제, 간섭, 지침, 매뉴얼로 가득 차있는 학교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 교과서, 교육과정, 심지어 교사의 복장까지도 지침화하는 온갖 잔소리 속에서 통제하고 규제하는 온갖 장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학교 자체가 코흘리개 아이처럼 취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어른이 되는 조직으로 변해가야 한다
- 전국의 진보 교육감 및 교사들에게 제안함 1 : 실험형 공립 대안학교 -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학교를 제안합니다. 모인 구성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학교를 조직하고 건설해가는 교육적 실험이 가능한,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를 제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치유이다

- 위장된 민주주의, 표피적 민주주의에서 더 진실한 민주주의, 민주적 정신이 스며든 민주주의로
- 바보만들기 – John Taylor Gatto
- 학교는 인간을 구속하는 첫번째 사회적 체험을 만들어주는 곳
- 제도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에서 타인과 관계맺는 가족 다음의 원형적 경험 – 경쟁과 구속, 지배와 예속, 인기-인정과 배제
- 정의가 체험되지 않는 학교에서 각자도생 (비민주적, 폭력적)의 원리를 교정해주는 것에 무능력해지면 길을 잃는다
- 민주주의를 더 실험하는 학교
- 민주주의를 실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한!!
-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 권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없다
-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쉴 권리, 나의 권리, 너의 권리
- 전국의 진보교육감 및 교사들에게 드리는 제안 2 : 새로운 권리장전을 필요로 한다 – 인권조례에 이은 새로운 학생, 교사 권리장전,

협력이 치유이다

- 너무 어린 나이부터 지쳐가는 아이들 - 어른들의 욕망에 대한 대리 경쟁에 한국의 아이들은 빨리 지쳐가고 있다
- 사교육 2.6세의 불안한 사회
- 경쟁과 능력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지 못한 채로 성장, 원시적 생존 이데올로기를 교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 학교는 협력을 강화하는가? 협력을 배제하는가?
- 학교는 우선적으로 협력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사회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는데 실패한다
- 협력의 우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혁신도 경쟁이 되면, 혁신도 성과가 되면, 혁신이 연대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혁신이 개인의 욕망이 되면, 혁신이 아니다
- 진보교육감과 전국의 교사들에게 드리는 제안 3 - 전국적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혁신 학교들의 사회적 연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방침. 공교육의 정체성 확립, 협력의 교육철학, 다양성의 교육철학, 민주주의의 교육철학
- 예시) 민주적 학교 운영의 최소 기준에 대한 토의, 평등한 학교 운영의 최소 기준에 대한 토의

참여가 치유이다

- 학생과 교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학교
- 무시험제도 – 작은 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에 기반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로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
- 자유교육과정 – 국가의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배울 내용을 변형해 갈 수 있다
- 자율학년제도 – 작은 학교에서는 학년을 오르내리면서 함께 지낼 수 있다
- 운영참여제도 –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제도, 그리고 협력의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 참여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운영방안을 만들어가는 학교
- 학생회와 교사회의 자율적 운영과 그 협력에 의해
- 진보교육감과 전국의 교사들에게 드리는 제안4 : 학생참여, 학생회 참여, 교사참여, 교사회 참여의 학교 운영방안이 공유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기여가 치유이다

- 스스로에게 기여하고, 타인에게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학교
- 손해본다는 기분에 휩싸인 관계의 분위기, 피해의식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생하고 공존하고 기여해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적으로 잉태하고 발생하고 실천해가기
-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교류, 상호기여, 사회적 경제의 일원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 전국의 진보교육감과 교사들에게 드리는 제안 5 : 학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단지 일이 아니라 생활로서 지역사회에서도 참여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로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단합되고 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갖도록 돕기

자주적 학교

- 1. 교사와 학생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고, 발전하고, 민주적 조직이 되기 위한 실제적 체험을 상호경험하는 학교
- 2. 협력과 참여, 기여에 기반해서 생활하는 원리를 추구하는 학교
- 3. 평등에 기반한 학교
- 4. 치유가 목표인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 자체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곳